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통합·민생” 외치며 광폭행보

추미애 대표 공식일정 시작

“박대통령도 5·18기념식 참석해야”

이정현·박지원 대표 상견례

1~2일 광주서 첫 현장행보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29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추 대표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김구 선생 묘역은 물론이고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까지 두루 참배하는가 하면 전현직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 모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통합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예방했다.

추 대표는 이날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처방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고 적었다. 추 대표는 지도부 전체와 함께 모든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에 밝힌 소감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고, 오늘날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하나 돼 통합하라는 시대 과제가 있다”며 “이 나라를 이끌었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출발을 다짐하는 각오를 밝히고 도와주실사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더민주 지도부가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문재인 대표 때도 있었지만 당시는 최고위원 겸임이 불참해 ‘반쪽참배’에 그쳤다. 추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평가는 있는 그대로 써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박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4·3 추념식에 참석해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대표는 전당대회 이틀날인 지난 28일 오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잘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전 대표 뿐 아니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의 잠룡들에게도 ‘릴레이 전화’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29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왼쪽)한 뒤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가운데) 오후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추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한 뒤 새누리당 이 대표를 만나 상견례를 가졌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지만, 추 대표는 “제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할 잘 경청해달라”고, 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은 부탁을 많이 하겠다”고 각각 말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어 추 대표는 국민의당 박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애길 안 해도 눈빛만 보면 마음을 읽는 사이이기 때문에 두 당이 공조하고 경쟁하면서 잘해나가지”고 말했다. 이에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인 통합을 해이지만 힘이 생기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며 “꼭 통합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고 답했다. 이후 추 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2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검찰개혁특위 구성, 세월호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지난 3일 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을 모두 상정해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찾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원천무효다.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가 여성 대표에게 철뚝 공조로 막아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추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생 쟁기기’의 하나로 내달 1~2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첫 현장행보 테이블을 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 함께 추 대표가 내세운 키워드인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야권의 뒷받침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호남에서 시작하려는 것이다. 앞서 오는 31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사무총장 안규백·정책위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29일 사무총장에 3선의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정책위의장에 3선의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사무총장을 맡은 안 의원은 구 민주계에 뿌리를 둔 당료 출신의 범주류 성향이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는 등 문 전 대표와도 가깝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윤 의원은 2012년 대선 패배 후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의 기용 배경에는 무엇보다 실무를 중시하겠다는 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1988년 당직자로 시작해 조직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전략홍보본부장 등의 당직을 거쳤다.

윤 의원은 1988년 당직자를 시작으로 전략기획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정책위부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맡았다.

특히 윤 의원은 경우 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책위 위원으로, “국회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사드 당론을 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전날 인선된 윤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 원내대변인 등의 경험이 있고, 신창현 비서실장도 추 대표가 캠프 때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 최고위원 | |
|---------------------------------------|---|
| 김영주 (60) 3선(서울 영등포구갑) - 서울-제주 | 진해철 (54) 재선(경기 안산 상록구갑) - 경기-인천 |
| 최인호 (49) 초선(부산 사하구갑) - 영남 | 김준진 (63) 의원 - 호남 |
| 심기준 (55) 강원도당 위원장 의원 - 강원-충청 | 김병관 (43) 초선(경기 성남 분당구갑) - 청년 최고위원 |
| 양항자 (49) 의원 - 여성 최고위원 | 송현섭 (79) 의원 - 노인 최고위원 |
| 사무총장 | |
| 안규백 (55) 3선 - 서울 동대문갑 | 윤호중 (53) 3선 - 경기 구리 |

실무형 인선으로 볼 수 있다.

안 신임 사무총장이 전북 고창 출신, 신 신임 비서실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지만 호남 민심과의 체감도가 낮는데다 핵심 주류 성향이라는 점에서 통합형 인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 대표는 남은 당직에 대해서도 조만간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애 선명야당·수권야당...‘사드 반대 당론’이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노선이 조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명야당’의 기치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수권야당’을 표방하며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추 대표는 선명·강경노선을 견지하리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는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등 중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 채택 문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급작한 현안들이 남아있어 ‘추다르크 2.0’ 노선이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식행보를 통해 ‘통합’과 ‘민생’의 조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야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두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국민이 하나 되라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적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현재를 정권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선 안 된다”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와 관련, 당 내외에서는 추 대표가 복합적 대선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근

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통해 야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민생과 통합의 행보로 국민적 지지를 견인하고 야권의 통합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반대 당론 문제 역시 추 대표가 예상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임 지도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추 대표의 정치적 노선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권과 충돌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색채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HanaTour.com
편의점권거래소 상점가입

제 1회 하나투어 내나라 골프대회

대회 개요 & 시상 내역

- 대회 기간 : 2016년 9월 25일(일) ~ 26일(월)
- 대회 장소 : 엘리스안 CC 18H + 레이크 힐스 18H
- 시상 내역
 - 우승(신페리오) : 제주도 2인 골프 상품권 (2인 항공권, 엘리스안 그린피, 골프텔 숙박권)
 - 메달리스트 : 주중 명문골프장 4인 라운드 이용권 (그린피&카트피)
 - 홀인원 : 레이크 힐스 CC 4인 라운드 이용권
 - 롱기스트/니어리스트 (남,여 별도) : 호텔 숙박권 1박/1인 기준

제주 아마추어 골프대회

총상품가 495,000원 1인 (4인 1팀 구성)

- 포함사항 : 광주 ↔ 제주 왕복항공권, 엘리스안 골프텔 숙박 포함(40평/4인 숙박), 2일차 조식&중식
- 일 정 : 2016년 9월 25일(일) ~ 26일(월)
 - 1일차 : 레이크 힐스 CC - 18H [자유 골프]
 - 2일차 : 엘리스안 CC - 18H [대회/샷건방식]
- 참가자 혜택 : 스피스 골프공 (하프드즌) 증정

참가문의 |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 062) 228-1199



여행의 즐거움, 면세점쇼핑
하나투어 이용시,
SM면세점 최고 30%할인!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차량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업자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권, 호텔 등 여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결제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세한 내용은 인터넷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상품] 개인정보(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여행지 보장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가입을 권장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8004-0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구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금호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특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직접/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억 1천만원 가입.